

MBC 귀중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결과 보고서

2024. 04. 04.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5
II. 조사 설계	6
III. 조사 내용	7
IV. 표본의 특성	8

2장. 조사 결과 분석

I. 22대 총선 관련	10
1. 투표 참여 의향	10
2. 투표 참여 시기	11
3.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12
4.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13
5.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14
6. 22대 총선 전망	15
II. 국정 및 각종 현안	16
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6
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7
3.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	18
4.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	19
5.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견해	20

1장

조사의 개요

- I. 조사의 목적
- II. 조사 설계
- III. 조사 내용
- IV. 표본의 특성

I .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수집자료

- 22대 총선 관련
- 국정 및 각종 현안



기대효과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II. 조사 설계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2024. 04. 04.)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4년 04월 02일 ~ 04월 03일(2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2명(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2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15.9%(총 6,31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2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2024. 04. 04.)

22대 총선 관련

- 투표참여 의향
- 투표 참여 시기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 22대 총선 전망

국정 및 각종 현안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
-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
-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견해

IV. 표본의 특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2)	100	(1,002)	100
성별	남성	(506)	50	(496)	50
	여성	(496)	50	(506)	50
연령	18세-29세	(114)	11	(159)	16
	30대	(131)	13	(149)	15
	40대	(196)	20	(178)	18
	50대	(214)	21	(197)	20
	60대	(189)	19	(173)	17
	70세 이상	(158)	16	(146)	15
지역	서울	(213)	21	(188)	19
	인천/경기	(303)	30	(322)	32
	대전/충청(세종)	(95)	9	(106)	11
	광주/전라	(106)	11	(98)	10
	대구/경북	(100)	10	(97)	10
	부산/울산/경남	(148)	15	(149)	15
	강원/제주	(37)	4	(42)	4

2장

조사 결과 분석

I. 22대 총선 관련

II. 국정 및 각종 현안

I. 22대 총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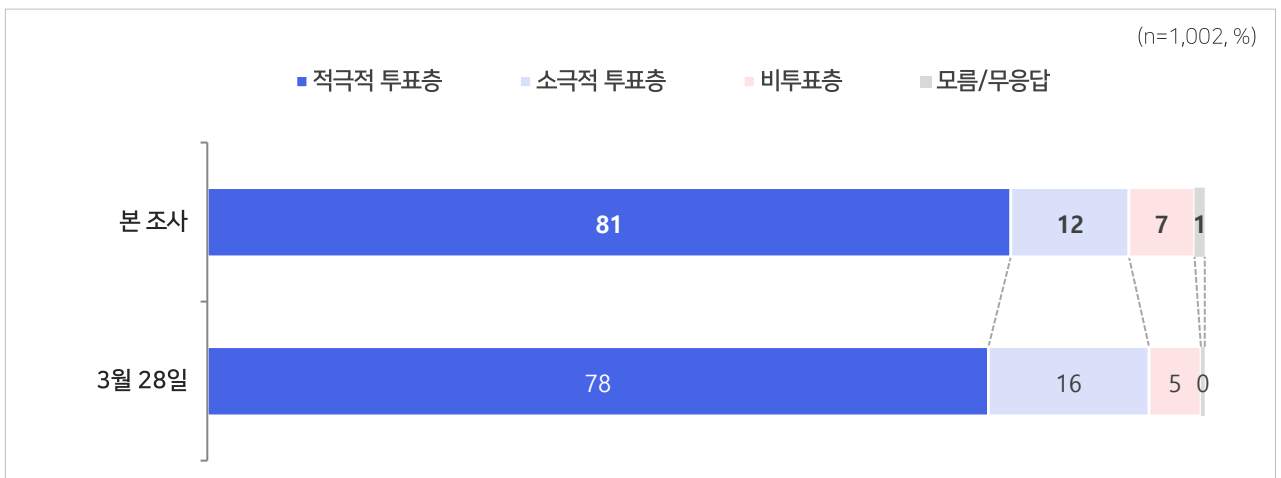
1. 투표 참여 의향

문2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적극적 투표의향층은 8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소극적 투표의향층은 12%로 조사됨.

☞ 3월 28일 조사와 비교하여, 적극적 투표층은 3%p. 높아짐.

- ✓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10)의 91%, 국민의힘 지지층(n=379)의 8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층(87%)에서 특히 높음.



구분	사례수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가능하면 투표할 것 (소극적 투표층)	비투표층	투표 의향		결정 못했다/ 모름/무응답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체	(1,002)	81	12	7	4	3	1
연령	18세-29세 (114)	53	24	18	9	9	5
	30대 (131)	76	14	10	7	4	0
	40대 (196)	80	14	5	3	2	1
	50대 (214)	87	8	5	3	2	0
	60대 (189)	91	7	2	1	1	0
	70세 이상 (158)	94	5	1	0	1	0
지역	서울 (213)	79	15	6	4	2	1
	인천/경기 (303)	80	12	7	3	4	1
	대전/충청(세종) (95)	84	10	6	3	3	0
	광주/전라 (106)	84	13	4	3	1	0
	대구/경북 (100)	78	12	9	6	3	1
	부산/울산/경남 (148)	83	11	7	4	2	0
	강원/제주 (37)	77	6	10	7	3	7
지역구 투표 정당	더불어민주당 (410)	91	8	8	0	1	0
	국민의힘 (379)	88	8	8	2	1	0
	기타 정당 (60)	77	19	19	3	0	1
	무당층 (153)	45	24	24	14	12	5
이념 성향	보수 (304)	87	8	5	2	3	0
	중도 (337)	80	14	5	2	2	2
	진보 (278)	84	11	5	4	1	0
	모름/무응답 (83)	51	20	23	11	12	5

I. 22대 총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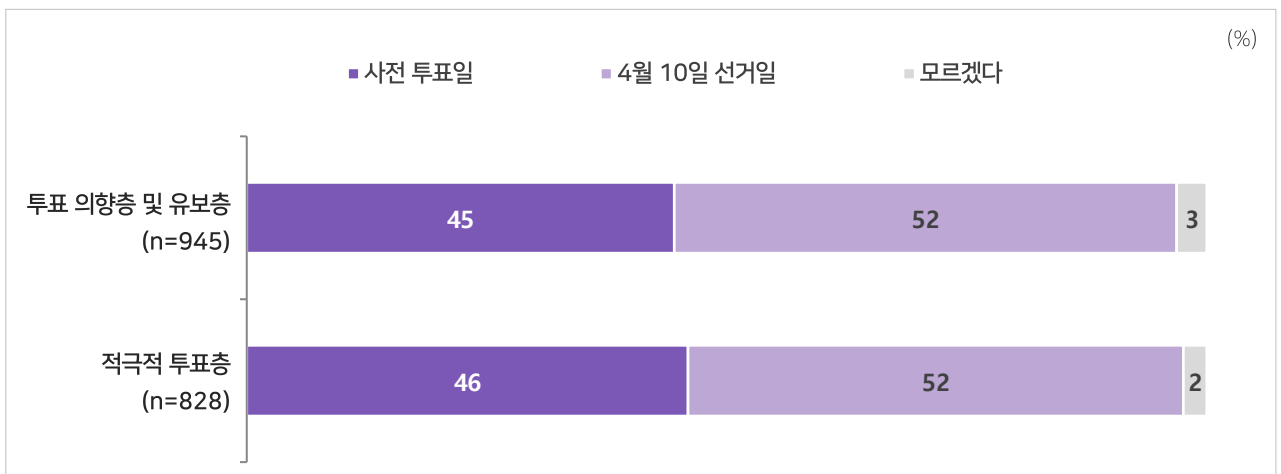
2. 투표 참여 시기

문2

(문1의 1,2,9 응답자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다음주 10일이고,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일은 5일과 6일입니다.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시겠습니까? 10일 선거일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투표의향층과 유보층(n=945)에게 투표 참여 시기를 조사한 결과, '4월 10일 선거일'은 52%, '사전 투표일'이라는 응답은 45%임.
- 실제 투표층에 가까운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n=828)은 '4월 10일 선거일'이 52%, 사전투표일은 46%로 조사됨.

- ✓ '4월 10일 선거일'은 70세 이상(68%), 지역구 국민의힘 지지층(66%), 비례대표 국민의미래 지지층(64%)에서 높음.
- ✓ '사전 투표일'은 30대(52%),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0%),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지지층(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사전 투표일	4월 10일 선거일	모르겠다
전체	(945)	45	52	3
적극적 투표층	(828)	46	52	2
연령	18세-29세 (94)	41	54	5
	30대 (118)	52	45	3
	40대 (186)	46	51	3
	50대 (204)	51	45	4
	60대 (186)	45	53	2
	70세 이상 (157)	29	68	3
지역	서울 (200)	43	52	5
	인천/경기 (287)	43	52	5
	대전/충청(세종) (90)	43	57	0
	광주/전라 (102)	50	49	1
	대구/경북 (92)	45	54	1
	부산/울산/경남 (139)	49	48	3
지역구 투표 정당	강원/제주 (35)	36	64	0
	더불어민주당 (406)	60	38	2
	국민의힘 (367)	31	66	3
	기타 정당 (58)	32	66	1
비례 대표 투표 정당	무당층 (114)	39	53	8
	더불어민주연합 (172)	54	45	1
	국민의미래 (287)	33	64	2
	조국혁신당 (231)	65	32	3
무당층 (144)	35	59	6	

I. 22대 총선 관련

3.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문3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순서는 무작위 순입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2% 등의 순임('태도 유보(없다+모름/무응답)' 18%).
- 적극적 투표층(n=828)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39%로 두 당의 격차는 더 벌어짐.
- 사전 투표 의향자(n=421)의 57%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26%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4월 10일 선거일 투표의향자(n=496)의 47%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31%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함.
-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지지층(n=232)의 88%는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월 28일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음(8%p. → 4%p.).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56%)와 50대(50%), 광주/전라(65%), 진보 성향층(70%)에서 높음.
- ✓ '국민의힘'은 60대 이상(60대 47%, 70세 이상 58%), 대구/경북(52%), 보수 성향층(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2)	40	36	1	1	2	3	18
적극적 투표층	(828)	45	39	0	1	2	3	10
투표 참여 시기								
사전 투표일	(421)	57	26	1	0	2	1	13
4월 10일 선거일	(496)	31	47	1	1	2	4	15
모름	(28)	25	34	0	0	3	0	38
연령								
18세-29세	(114)	28	23	1	0	3	1	45
30대	(131)	39	26	1	3	4	1	26
40대	(196)	56	25	0	1	2	3	13
50대	(214)	50	38	0	0	2	3	7
60대	(189)	37	47	1	0	1	4	10
70세 이상	(158)	24	58	1	1	0	4	13
지역								
서울	(213)	39	38	2	1	1	2	17
인천/경기	(303)	39	34	1	1	2	1	22
대전/충청(세종)	(95)	40	39	0	0	3	1	16
광주/전라	(106)	65	14	1	0	3	4	14
대구/경북	(100)	22	52	0	0	1	7	18
부산/울산/경남	(148)	38	39	0	0	3	3	16
강원/제주	(37)	40	35	0	0	0	0	25
비례대표 투표 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	(173)	87	4	1	0	2	1	6
국민의미래	(294)	2	93	0	0	0	2	3
조국혁신당	(232)	88	2	0	0	2	3	5
무당층	(186)	15	19	0	0	0	2	64
이념 성향								
보수	(304)	13	75	0	0	1	2	8
중도	(337)	45	28	1	1	3	3	19
진보	(278)	70	10	1	1	2	2	13
모름/무응답	(83)	18	14	1	0	1	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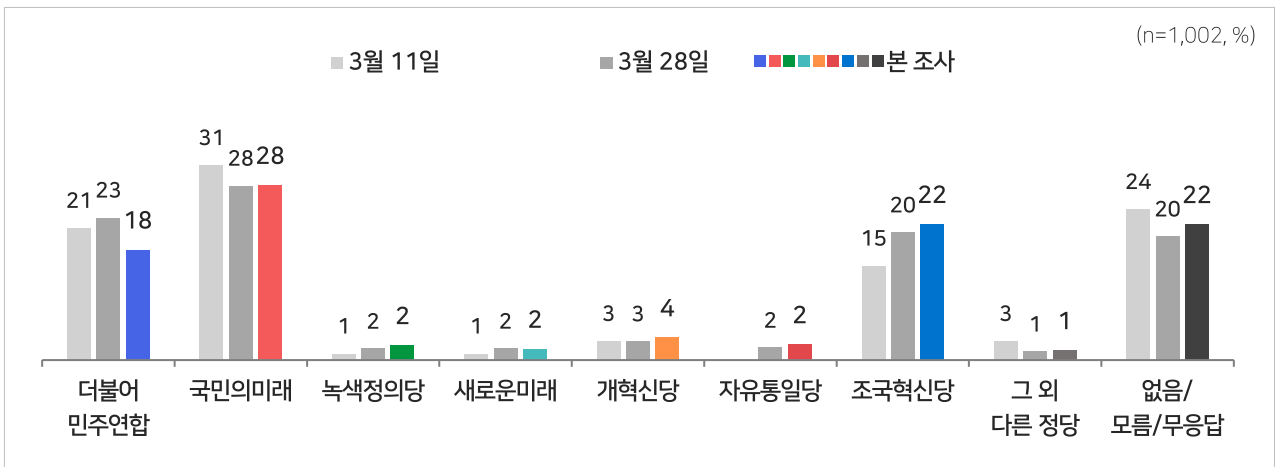
I. 22대 총선 관련

4.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문5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투표할 정당으로는, '국민의미래' 28%,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연합' 18%, '개혁신당' 4% 등의 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2%).
 -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n=379)의 72%가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n=410)은 38%는 '더불어민주연합' 47%는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함.
- ☞ 3월 28일 조사 대비, '조국혁신당'은 2%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5%p. 낮아짐.

- ✓ '국민의미래'는 60대 이상(60대 41%, 70세 이상 49%), 대구/경북(44%)에서 높음.
- ✓ '조국혁신당'은 40대(36%)와 50대(35%), 광주/전라(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2)	18	28	2	2	4	2	22	1	22	
지역구 투표 정당	더불어민주당	(410)	38	1	3	0	1	0	47	1	8
	국민의힘	(379)	2	72	1	2	3	6	1	2	11
	기타 정당	(60)	10	11	11	13	22	5	16	6	8
	무당층	(153)	6	4	2	2	3	0	6	2	75
연령	18세-29세	(114)	18	15	6	2	6	1	2	1	48
	30대	(131)	23	16	1	3	4	1	15	1	36
	40대	(196)	24	17	1	3	3	2	36	2	14
	50대	(214)	15	30	1	1	2	2	35	2	11
	60대	(189)	15	41	1	1	4	4	24	1	10
	70세 이상	(158)	9	49	3	1	2	6	11	2	15
지역	서울	(213)	18	30	2	3	4	2	21	2	16
	인천/경기	(303)	16	25	3	2	3	3	24	1	23
	대전/충청(세종)	(95)	20	31	1	2	3	2	16	1	24
	광주/전라	(106)	30	11	2	1	2	0	35	2	17
	대구/경북	(100)	10	44	2	1	5	3	10	2	23
	부산/울산/경남	(148)	17	30	2	1	4	3	21	2	21
	강원/제주	(37)	11	24	0	0	2	5	16	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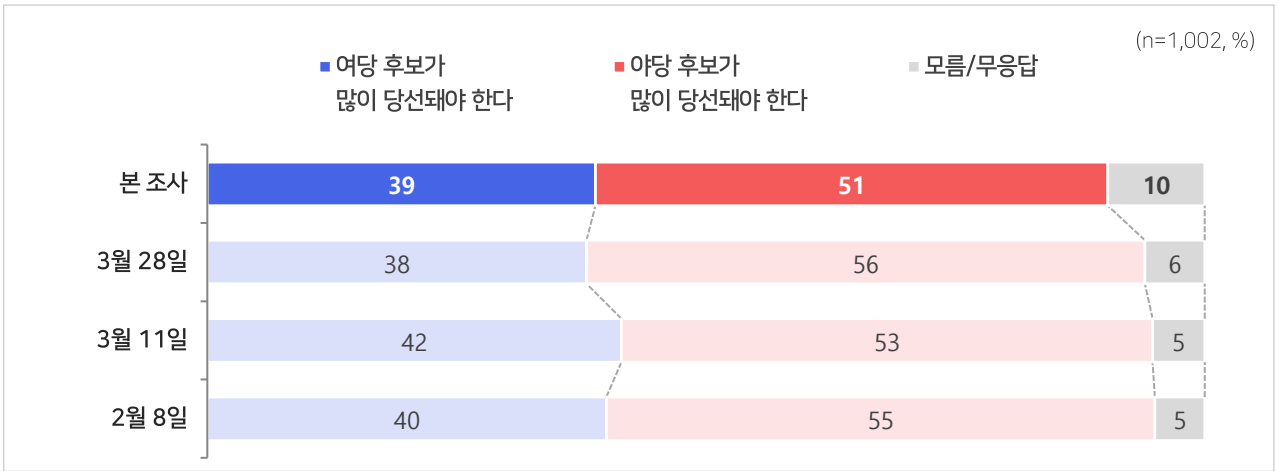
I. 22대 총선 관련

5.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문5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가십니까? (보기1-2 로테이션)

- 총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9% 보다 높음.
 - ☞ 3월 28일 조사 대비, '정부 견제론'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정부 견제론'이 우세함.

- ✓ '현 정부 견제론'은 30대(63%)와 40대(68%), 광주/전라(74%), 화이트칼라 종사자(60%), 진보 성향층(85%) 과 중도층(60%)에서 높음.
- ✓ '현 정부 지원론'은 60대 이상(60대 49%, 70세 이상 65%), 대전/충청(세종)(48%)와 대구/경북(59%), 주부 (52%), 보수 성향층(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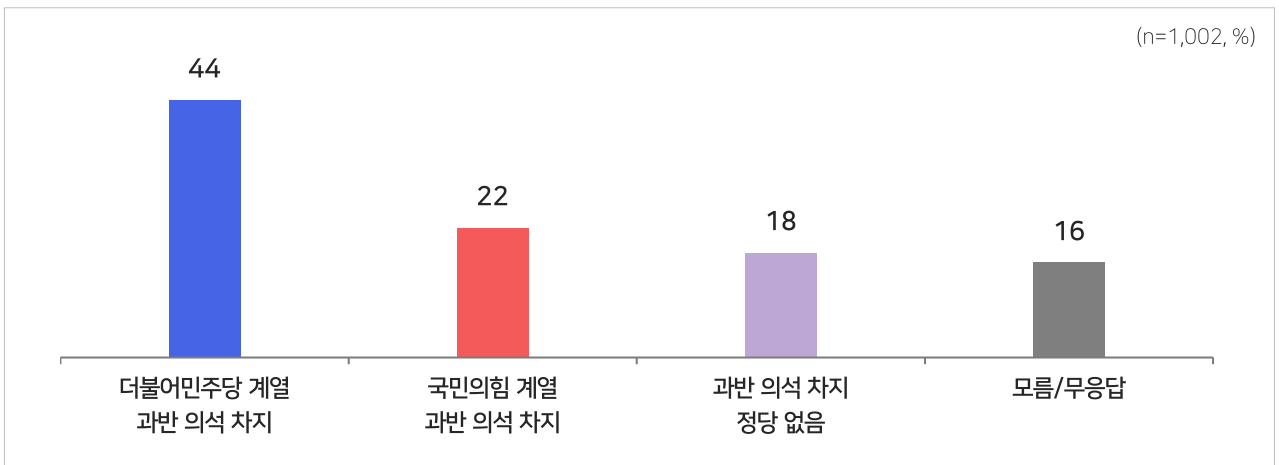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	모름/무응답 (%)
전체	(1,002)	39	51	10
연령	18세-29세 (114)	26	48	26
	30대 (131)	24	63	13
	40대 (196)	27	68	5
	50대 (214)	43	54	3
	60대 (189)	49	43	7
	70세 이상 (158)	65	29	6
지역	서울 (213)	41	52	7
	인천/경기 (303)	34	54	12
	대전/충청(세종) (95)	48	44	8
	광주/전라 (106)	17	74	9
	대구/경북 (100)	59	31	9
	부산/울산/경남 (148)	38	54	8
직업	강원/제주 (37)	51	36	13
	농/임/어/축산 (22)	70	27	4
	자영업 (180)	43	53	4
	블루칼라 (170)	27	58	15
	화이트칼라 (276)	32	60	8
	주부 (196)	52	37	11
이념 성향	학생 (52)	24	55	22
	무직/기타 (106)	50	41	9
	보수 (304)	79	16	5
	중도 (337)	31	60	9
	진보 (278)	13	85	2
	모름/무응답 (83)	16	34	50

I . 22대 총선 관련

6. 22대 총선 전망

문6 선생님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 22%보다 높았으며, 한편,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은 18%임.
- ✓ '더불어민주당 계열 과반 의석'은 30대~50대(30대 50%, 40대 63%, 50대 53%), 광주/전라(60%), 화이트 칼라 중상자(58%), 진보 성향층(66%)과 중도 성향층(54%)에서 높음
- ✓ '국민의힘 계열 과반 의석'은 60대(29%)와 70세 이상(42%), 부산/울산/경남(31%), 주부(35%), 보수 성향층(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어느 정당도 과반 차지 못할 것'은 18~29세(28%), 학생(2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	모름/무응답
전체	(1,002)	44	22	18	16
연령	18세-29세 (114)	29	11	28	31
	30대 (131)	50	14	21	14
	40대 (196)	63	16	13	7
	50대 (214)	53	21	17	9
	60대 (189)	43	29	16	13
	70세 이상 (158)	19	42	12	27
지역	서울 (213)	48	18	18	15
	인천/경기 (303)	44	21	18	17
	대전/충청(세종) (95)	40	28	19	14
	광주/전라 (106)	60	9	12	19
	대구/경북 (100)	30	27	22	21
	부산/울산/경남 (148)	42	31	14	13
직업	강원/제주 (37)	38	20	28	13
	농/임/어/축산 (22)	27	50	15	9
	자영업 (180)	47	26	17	10
	블루칼라 (170)	50	13	14	22
	화이트칼라 (276)	58	15	20	8
	주부 (196)	26	35	14	25
이념 성향	학생 (52)	38	5	26	31
	무직/기타 (106)	27	33	22	18
	보수 (304)	21	48	19	12
	중도 (337)	54	14	20	12
	진보 (278)	66	8	16	9
	모름/무응답 (83)	14	10	11	65

II. 국정 및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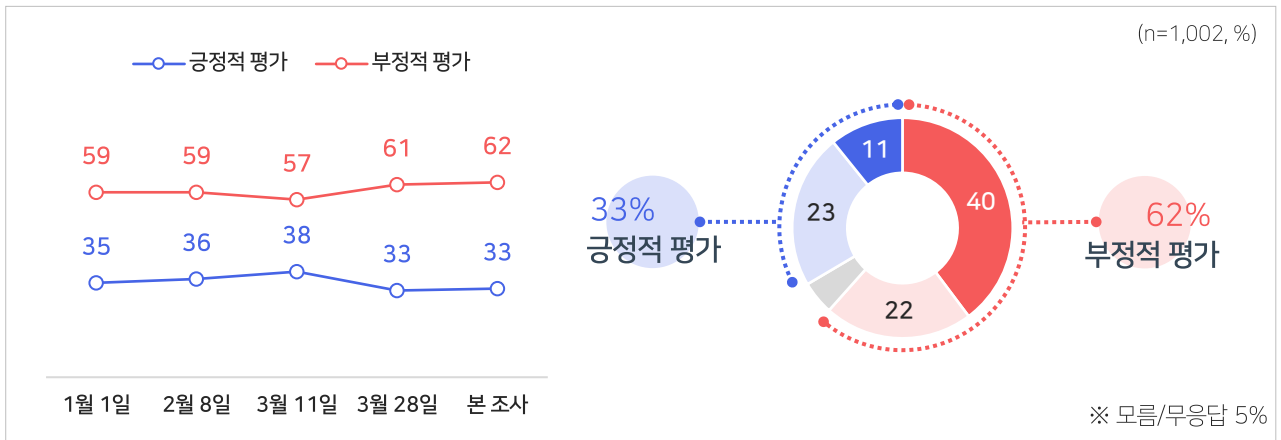
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문7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62%임(모름/무응답 5%).

☞ 지난 3월 28일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적 평가'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 '부정적 평가'는 40대 이하(29세 이하 68%, 30대 78%, 40대 77%), 광주/전라(75%), 화이트칼라 및 블루칼라 종사자(각 69%), 진보 성향층(89%)과 중도층(72%)에서 높음.
- ✓ '긍정적 평가'는 60대 이상(60대 46%, 70세 이상 62%), 대구/경북(51%), 주부(53%), 보수 성향층(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002)	11	23	22	40	33	62	5
연령	18세-29세 (114)	2	16	40	27	18	68	14
	30대 (131)	4	15	33	45	19	78	3
	40대 (196)	5	15	18	58	20	77	3
	50대 (214)	14	23	12	49	37	61	2
	60대 (189)	14	31	16	36	46	53	2
	70세 이상 (158)	26	36	14	18	62	32	6
지역	서울 (213)	8	26	22	40	34	63	4
	인천/경기 (303)	9	20	25	39	29	65	6
	대전/충청(세종) (95)	16	22	21	37	38	59	3
	광주/전라 (106)	2	17	17	58	19	75	5
	대구/경북 (100)	14	36	17	24	51	41	8
	부산/울산/경남 (148)	15	20	21	42	35	63	2
직업	강원/제주 (37)	17	23	19	32	40	51	10
	농/임/어/축산 (22)	19	37	14	27	56	41	4
	자영업 (180)	14	22	15	48	37	62	1
	블루칼라 (170)	8	17	23	46	25	69	6
	화이트칼라 (276)	6	21	23	46	26	69	5
	주부 (196)	16	37	12	31	53	43	4
이념 성향	학생 (52)	1	11	59	18	13	77	10
	무직/기타 (106)	19	19	24	31	38	55	7
	보수 (304)	25	43	18	11	68	29	3
	중도 (337)	7	17	27	45	24	72	4
	진보 (278)	2	9	18	71	11	89	0
	모름/무응답 (83)	9	17	25	21	26	4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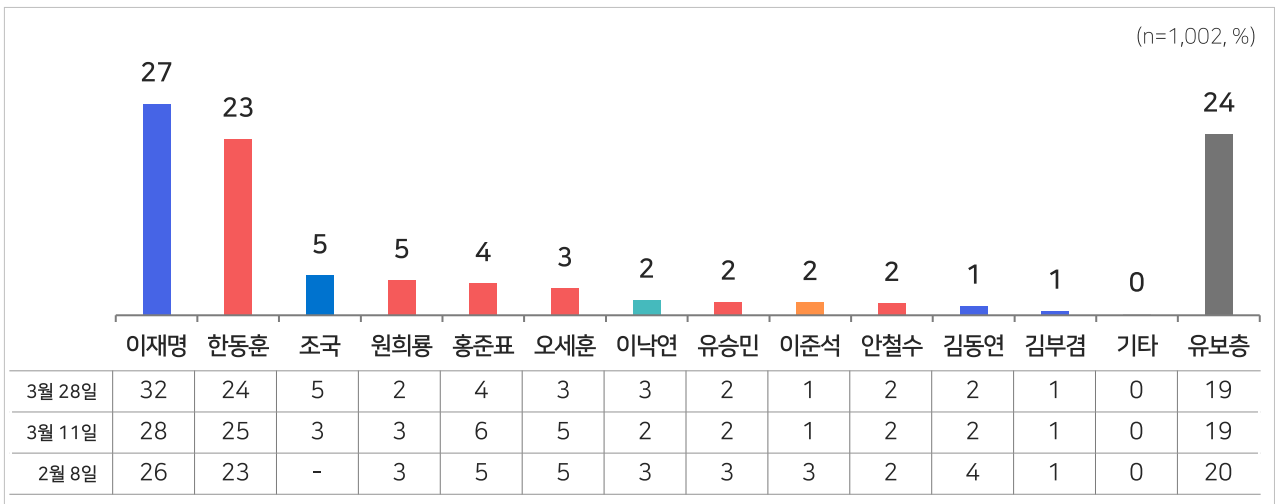
II. 국정 및 각종 현안

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문8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음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27%, '한동훈' 비대위원장 23%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물들은 한자리 수 비율을 보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4%).
 ☞ 지속적으로 이재명, 한동훈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
- 여권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23%), '원희룡'(5%), '홍준표'(4%) 등의 순임.
- 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27%), '조국'(5%), '이낙연'(2%) 등의 순임.

- ✓ '이재명' 대표는 40대(43%), 광주/전라(43%), 진보 성향층(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0세 이상(47%), 대구/경북(40%), 보수 성향층(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이재명	한동훈	조국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이낙연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김동연	김부겸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1,002)	27	23	5	5	4	3	2	2	2	2	1	1	0	24
연령	18세-29세 (114)	18	7	1	0	11	3	0	4	3	3	0	0	0	51
	30대 (131)	24	14	3	3	5	4	5	1	4	1	2	1	1	32
	40대 (196)	43	15	7	3	4	3	2	0	1	2	1	0	0	19
	50대 (214)	32	26	11	6	1	2	0	1	0	1	1	1	0	15
	60대 (189)	26	29	5	6	4	5	2	3	2	1	2	2	0	14
	70세 이상 (158)	17	47	2	9	1	3	3	1	1	3	0	0	0	14
지역	서울 (213)	25	25	4	5	4	5	2	2	2	2	1	1	0	22
	인천/경기 (303)	29	20	5	6	4	3	2	2	1	2	2	0	1	24
	대전/충청(세종) (95)	24	26	5	4	2	2	0	3	2	1	0	2	0	30
	광주/전라 (106)	43	6	13	4	3	0	3	2	3	3	1	1	0	19
	대구/경북 (100)	13	40	2	1	7	5	2	0	2	1	0	1	0	25
	부산/울산/경남 (148)	28	26	6	1	6	5	2	1	2	1	2	0	0	21
강원/제주 (37)	28	18	2	15	3	4	2	0	2	0	0	0	0	25	
이념 성향	보수 (304)	6	50	2	11	7	6	0	2	1	2	1	0	0	13
	중도 (337)	29	16	7	4	3	3	2	3	3	1	1	1	0	26
	진보 (278)	54	7	8	0	2	2	3	0	1	1	2	0	1	19
	모름/무응답 (83)	11	9	0	1	7	2	2	2	2	1	1	0	1	62

II. 국정 및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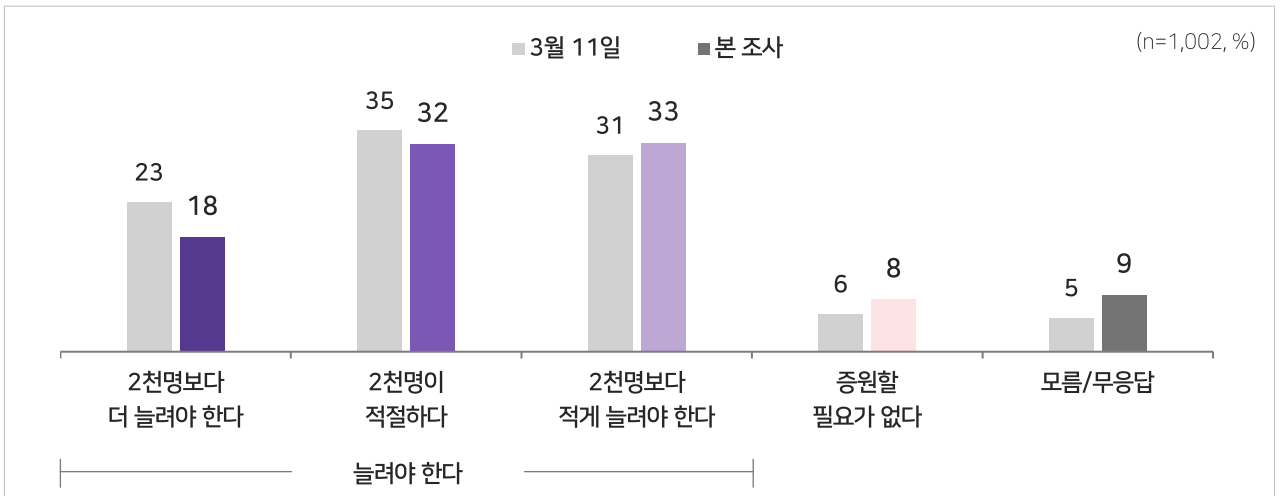
3.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

문9

정부는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증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무작위 순)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83%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2천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 33%, '2천명이 적절하다' 32%, '2천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 18%임.
- ☞ 지난 3월 11일 조사와 비교하여, '2천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5%p. 감소함.

- ✓ '2천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40대(45%), 서울(38%), 진보 성향층(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2천명이 적절하다'는 70세 이상(45%), 대전/충청(세종)(41%), 보수 성향층(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늘려야 한다				증원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늘려야 한다	2천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	2천명이 적절하다	2천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		
전체	(1,002)	83	18	32	33	8	9
연령	18세-29세 (114)	69	17	29	23	16	15
	30대 (131)	85	22	28	35	9	6
	40대 (196)	88	18	24	45	8	5
	50대 (214)	88	18	33	37	6	6
	60대 (189)	86	17	36	33	6	8
	70세 이상 (158)	81	15	45	20	4	15
지역	서울 (213)	87	19	31	38	6	7
	인천/경기 (303)	80	16	33	31	11	9
	대전/충청(세종) (95)	87	19	41	27	6	7
	광주/전라 (106)	79	14	29	36	10	11
	대구/경북 (100)	87	27	33	27	6	7
	부산/울산/경남 (148)	79	18	26	35	8	13
	강원/제주 (37)	89	18	40	31	2	9
이념 성향	보수 (304)	88	21	47	19	6	6
	중도 (337)	84	17	28	39	9	7
	진보 (278)	85	15	24	46	7	8
	모름/무응답 (83)	60	17	31	12	13	27

II. 국정 및 각종 현안

4.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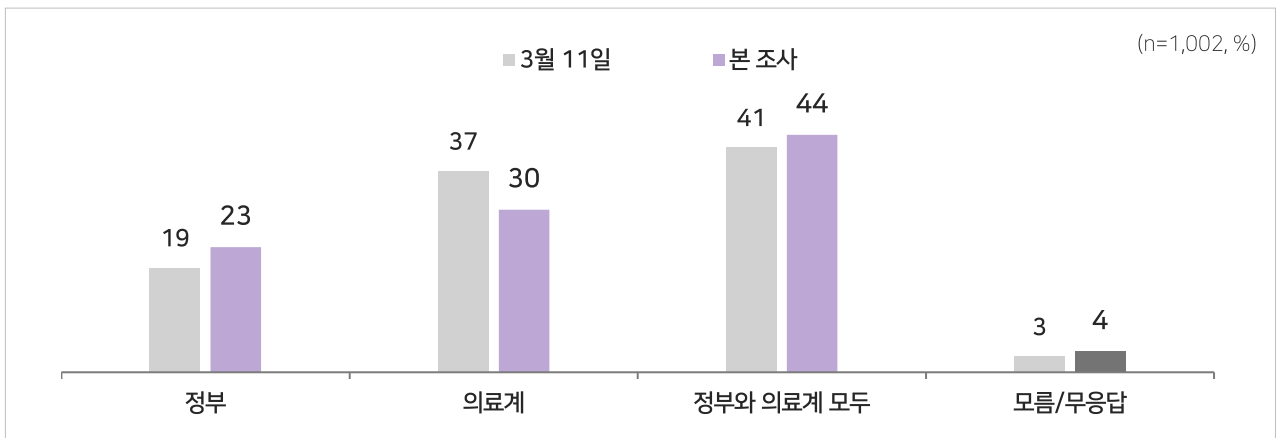
문10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무작위 순)

- 의료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계' 30%, '정부' 23% 순임.
- ☞ 지난 3월 11일 조사와 비교하여, '의료계' 책임이라는 응답은 7%p. 낮아진 반면,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4%p. 상승함.

✓ '정부와 의료계 모두'는 40세(56%), 광주/전라(49%), 진보 성향층(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의료계'는 60대(42%)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2%), 보수 성향층(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정부	의료계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모름/무응답
전체	(1,002)	23	30	44	4
연령	18세-29세 (114)	19	20	51	9
	30대 (131)	22	24	50	5
	40대 (196)	26	18	<u>56</u>	1
	50대 (214)	30	31	39	0
	60대 (189)	21	<u>42</u>	35	1
	70세 이상 (158)	17	<u>45</u>	30	9
지역	서울 (213)	23	28	46	3
	인천/경기 (303)	25	28	43	5
	대전/충청(세종) (95)	26	34	38	2
	광주/전라 (106)	26	22	<u>49</u>	4
	대구/경북 (100)	7	<u>42</u>	45	6
	부산/울산/경남 (148)	24	29	45	2
	강원/제주 (37)	29	32	32	7
이념 성향	보수 (304)	8	<u>48</u>	41	2
	중도 (337)	29	25	44	2
	진보 (278)	33	18	<u>48</u>	1
	모름/무응답 (83)	18	23	3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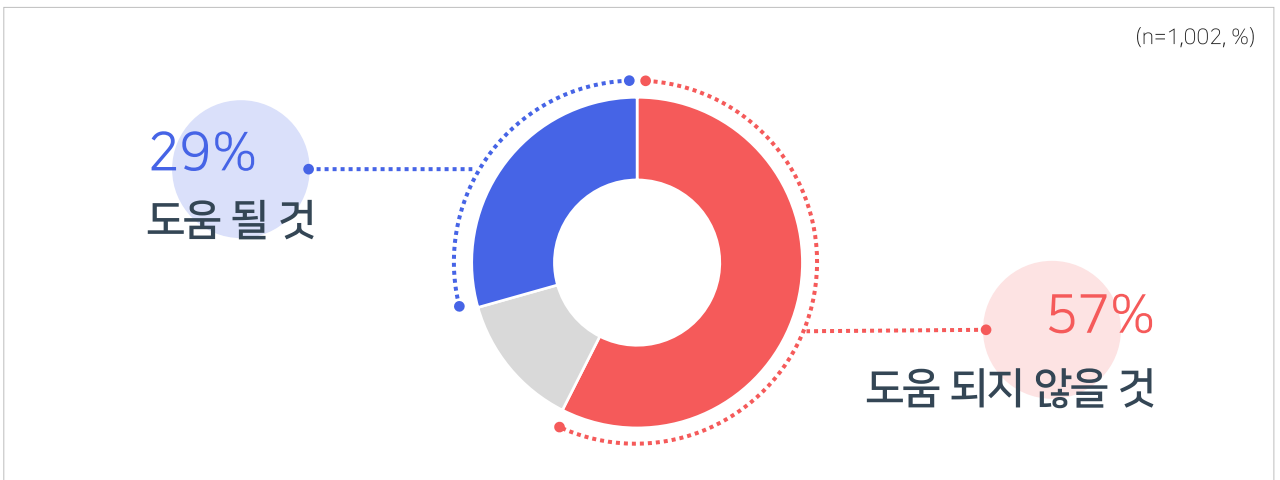
II. 국정 및 각종 현안

5.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견해

문11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담화가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7%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 29%보다 높음.
- ✓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30대(66%)와 40대(75%), 광주/전라(63%), 화이트칼라 종사자(68%), 진보 성향층(77%)에서 높음.
- ✓ '도움이 될 것이다'는 60대(38%)와 70세 이상(47%), 대구/경북(44%), 주부(38%), 보수 성향층(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29	57	13
연령	18세-29세 (114)	22	50	29
	30대 (131)	24	66	10
	40대 (196)	18	75	7
	50대 (214)	29	62	8
	60대 (189)	38	54	8
	70세 이상 (158)	47	33	19
지역	서울 (213)	25	61	14
	인천/경기 (303)	28	59	13
	대전/충청(세종) (95)	28	59	12
	광주/전라 (106)	21	63	16
	대구/경북 (100)	44	44	12
	부산/울산/경남 (148)	28	60	12
직업	강원/제주 (37)	50	37	13
	농/임/어/축산 (22)	54	33	13
	자영업 (180)	30	63	7
	블루칼라 (170)	24	61	15
	화이트칼라 (276)	23	68	9
	주부 (196)	38	46	16
이념 성향	학생 (52)	29	36	34
	무직/기타 (106)	34	51	14
	보수 (304)	55	36	9
	중도 (337)	22	67	11
	진보 (278)	16	77	7
	모름/무응답 (83)	14	32	55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연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발행일 2024년 04월 04일

발행처 코리아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 02-3415-5100

<비매품>